

- 주요 뉴스: 러시아,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회수를 일시 제한. WTI 등 국제유가는 급등
 - 미국 2월 ISM 제조업경기지수, 예상치 상회. 오미크론 감염 여파가 악화
 -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, 우크라이나 사태로 ECB는 통화긴축 잠시 보류할 필요
 - IEA(국제에너지기구), 비축유 6000만배럴 공급에 합의. 유가 상승 억제가 목적
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악화
주가 하락[-1.6%], 달러화 강세[+0.7%], 금리 하락[-10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격화 가능성 등이 배경
유로 Stoxx600지수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2.4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반영되며 매수세 강화
유로화가치는 0.8% 하락, 엔화가치는 0.1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5주 만에 최저치
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21bp 하락해 마이너스로 전환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06.3원, +3.4원) 0.3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3/1일	2/28일	전일대비			3/1일	2/2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06.3	4,373.9	-1.55%	국채 금리 10y	미국	1.73%	1.83%	-10bp
	유럽	442.37	453.11	-2.37%		독일	-0.07%	0.14%	-21bp
	중국	3,488.8	3,462.3	0.77%	CDS 5y	한국	31bp	31bp	-0bp
	일본	26,845	26,527	1.20%		중국	62bp	65bp	-3bp
	한국	휴장	2,699.2	-	위험 지표	EMBI+	-	556	-
환율	달러지수	97.40	96.71	0.71%		VIX	33.32	30.15	10.51%
	유로화	1.1125	1.1219	-0.84%		WTI유	103.41	95.72	8.03%
	엔화	114.92	115.00	0.07%	원자재	구리	454.8	444.5	2.32%
	위안화	6.3119	6.3092	-0.04%		금	1,945.3	1,909.0	1.90%
	원화	휴장	1,202.3	-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러시아,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회수를 일시 제한. WTI 등 국제유가는 급등

- 미스슈틴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자산 매각을 강요받기에, 좀 더 시간을 갖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언급. 이는 루블화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부연. 최근 달러화 대비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
- EU는 VTB 등 러시아 7개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정(SWIFT) 배제 등을 합의. 거대 에너지 기업 BP와 Shell은 투자 중단을 발표했고,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송업체 AP Moeller-Maersk도 일시적으로 러시아로의 운송을 보류하기로 결정
- 주요 매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여, 이에 희생자들이 향후에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. 다만 일부에서는 물자공급 지연 등으로 러시아 병사들의 사기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
- 한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EU가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증명해주도록 요청하고, 러시아의 폭격 중단이 평화 협의를 위한 조건이라고 언급. G7 재무장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등을 약속
- 이날 WTI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돌파(103.41달러, 전일비 8%)하며 '14년 7월 이후 최고치.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. 브렌트유도 '14년 8월 이후 최고치(배럴당 104.97달러, 전일비 7%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2월 ISM 제조업경기지수, 예상치 상회. 오미크론 감염 여파가 약화

- 해당 지수는 58.6을 기록하여 전월(57.6) 및 예상치(58.0) 상회. 오미크론 확산이 1월 중순 정점을 지나면서 제조업 활동도 전반적으로 반등. 다만 제조업체 지급 비용이 최근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

■ JP모건, 미국 증시 최악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을 것으로 판단

- Marko Kolanovic 스트래티지스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이 약해지고 있으며, 이는 결국 미국 주가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. 또한, 이번 사태가 미국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

■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, 우크라이나 사태로 ECB는 통화긴축 잠시 보류할 필요

- 렌 총재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만, 새롭게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속도와 강도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

■ 중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, 전월비 상승. 신규수주 등이 호조

- 해당 지수는 50.4를 나타내 전월(49.1) 및 예상치(49.3) 상회. 하위 구성항목 가운데 신규수주는 '21년 6월 이후 최고치. 중국 물류구매협회의 Zhang Liquan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강화 등으로 경기회복 지속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

■ 중국 상무부장, 수출여건 악화·국내수요 부진의 이중고에 직면

- 왕 웬타오 부장은 국내수요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무역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. 특히 노동력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중소기업의 해외수주 능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

■ IEA(국제에너지기구), 비축유 6000만배럴 공급에 합의. 유가 상승 억제가 목적

- 6000만배럴은 IEA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의 4% 수준. 다만 Oanda의 Craig Erlam은 이번 조치가 게임 체인저(game-changer)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

■ 호주 중앙은행, 기준금리 동결. 첫 금리인상은 금년 말 가능할 전망

-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(0.1%)를 유지하기로 결정.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는 향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증가 및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3/1 현지시각 기준)

- 독일 2월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비): 5.5%, 1월(5.1%), 예상치(5.4%)
- 중국 2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: 50.2, 1월(50.1), 예상치(49.9)
- 중국 2월 국가통계국 서비스 PMI: 51.6, 1월(51.1), 예상치(-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2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파월 의장 의회 증언, ECB 데 퀴도스 부총재 강연
- 미국 2월 ADP 민간고용, बे이지북 발표,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유럽의 러시아 제재, 예기치 못한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 - WSI

(Western Sanctions Bite Russian Economy, but Pose Unpredictable Risks)

- 러시아는 '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부채 축소,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대외 충격을 대비. 하지만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러시아 금융부문 등에 큰 타격. 이에 물가가 급등하고 있으며, IIF는 금년 GDP가 전년비 10%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러시아는 아직까지 원유 및 가스 수출 등으로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이 또한 점차 축소될 전망. 이에 일부에서는 1998년 LTCM 파산과 같은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경고. 또한 서방 경제 시스템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분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

■ 우크라이나 사태, 세계 식량안보에 위험 요소 - The New York Times

(What the War in Ukraine Means for the World's Food Supply)

-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세계 농산물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. 양국의 밀, 콩, 해바라기유 수출은 각각 29%, 19%, 80% 수준. 이는 파키스탄, 이집트, 터키 등 밀가루 원료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국가에 리스크로 작용
-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밀의 수출을 제한한 2010년 식량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정치적 불안이 심화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관련 문제를 악화시켜, 곡물수입국의 국가 안보도 위협할 가능성
- 이에 국제사회는 식량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 필요. 특히 식량을 전쟁 무기화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요구

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, 유럽의 국방에너지 관련 지출확대 유도 예상 - 블룸버그

(Russian Invasion Pushes Europe Into New Era of Big Spending)

■ 러시아 금융제재, 국제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충격 유발 우려 - Financial Times

(Rouble/interest rates: knock-on effects of sanctions will ripple beyond Russia)

■ 중국 석유 수입업체, 재고 확충을 위해 러시아 원유 매입에 나설 소지 - 블룸버그

(Shunned Russian Oil May Be Grabbed by Hungry Chinese Buyer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